

### 남동구, 2026년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사업 본격 추진

남동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지역본부와 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48% 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자가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자가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2억 원으로, 총 288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경보수 214가구, 중보수 68가구, 대보수 6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경보수는 가구당 최대 590만 원(도배, 장판, 창호 등), 중보수는 최대 1,095만 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지붕, 옥실 및 주방 개량 등)까지 지원한다.

남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계양구, “집에서 돌봄 받는다”

####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앞두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조성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사업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주민, 퇴원 후 회복이 필요한 주민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병원 치료와 함께 방문 건강관리, 식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2025년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같은 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인력을 구성하는 등 본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왔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및 복지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 통합지원협의체 체계화, 실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돌봄 기반을 갖췄다.

## 인천시, 세계 물의 날 ‘쓰담걷기’로 생태 회복 앞장

### 남동유수지서 시민 100여 명과 실천형 환경정화 활동 기념식 탈피, ‘건고 좁는’ 체험 통해 물환경 가치 공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4일 남동유수지 일원에서 ‘2026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 발로 뛰는 환경정화 캠페인 ‘쓰담걷기(플로깅)’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환경보전 활동으로 추진됐다.

현장에는 시민과 학생, 환경단체, ‘1사 1하천’ 참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수질 개선을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 미꾸라지 방식부터 EM흙공까지...오감 만족수질 정화 행사는 물관리 유공자 11명에 대

한 표창과 정화 퍼포먼스에 이어 본격적인 실천 활동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수질 정화와 악취 제거에 탁월한 ‘유용미생물(EM) 흙공’을 유수지에 던지고, 수중 산소 공급과 장구벌레 등 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미꾸라지를 대거 방사하며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탰다.

이어 진행된 ‘쓰담걷기’에서 참가자들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저어새의 주요 서식지인 남동유수지부터 송기천변까지 이동하며 수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건강을 챙기면서 환경도 지키는 이번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물환경의 가치를 직접

체감했다.

■ “모두를 이롭게”... UN과 대한민국이 약속한 ‘생명의 물’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은 기후위기 시대에 누구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물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UN이 정한 2026년 주제인 ‘물과 양성평등(Water and Gender)’의 핵심 가치인 ‘보편적 물 복지’와 궤를 같이한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강화군 황산도 해역에 어린 점농어 15만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점농어는 지난해 11월에 부화해 약 5개월간 사육한 개체로, 크기는 7cm 내외다. 방류 전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거쳐 질병이 없는 우수한 종자로 확인됐으며, 성장 기간을 고려할 때 방류 후 1~2년 내 어업 자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농어는 인천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며, 대형어들이 어획되어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이다.

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어린 점농어를 지속해서 방류해 왔다. 현재까지 인천 앞바다에 방류한 점농어는 약 194만 마리에 이른다.

심하린 기자

## 강화천문과학관, 놀면서 배우는 과학



강화군(군수 박용철)의 대표 과학문화시설인 강화천문과학관이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화천문과학관은 오는 4월 매주 토요일 낮 시간, 천문우주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매주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우주와 과학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체험 중심 콘텐츠로 눈길을 끈다.

우선, 참가자들은 ‘생일 별자리 혼천의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천문 관측 장치인 혼천의의 원리를 알아 보고, 자신의 생일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전통 천문학 속 과학적 지혜를 배워볼 수 있다.

또한,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는

스펙트럼 현상을 알아보는 ‘뉴턴 분광기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간간 분광기를 직접 제작하여 빛의 성질과 종류를 쉽고 흥미롭게 탐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태양계 속 작은 천체인 소행성의 탄생과 발견의 역사를 알아보고, 울퉁불퉁한 소행성 모양 비누를 만들어 보는 ‘소행성 비누 만들기’, 나무 젓가락과 고무줄을 활용해 계란을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며 우주탐사선의 착륙 원리를 알아보는 ‘에그 드랍 착륙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아울러 미래 우주 탐사를 주제로 우주에서 식물을 키우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 나만의 화분을 꾸며 씨앗을 심어 보는 ‘별자리 화분 만들기’ 체험도 마련됐다.

프로그램 예약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강화천문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화천문과학관 관계자는 “과학의 달을 맞아 우주를 만들고 실험하며 배우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작은 과학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옹진군, 덕적면 공동육묘장 준공식 개최

옹진군은 24일, 덕적면 서포리 벼게뜰 일원에서 ‘공동육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경복 옹진군수를 비롯해 지역의원, 유관기관장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덕적면 공동육묘장은 농번기 노동력 부족 해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안정적 벼 모판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은 2개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1차년도에는 육묘장 신축과 함께 육묘·이앙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2차년도에는 부대공사와 육묘용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 기반을 완성했다.

공동육묘장은 총 면적 504㎡ 규모로 조성됐으며, 온탕소독기 등 9종 10대의 육묘 관련 장비를 갖춰 체계적인 육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연간 육묘 가능량은 8천 장에서 1만 장 수준으로, 약 35~40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덕적면 전체 벼 재배면적(약 60ha)의 6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군은 올해 시설 안정화와 운영 점검을 위한 시험육묘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모판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4월 30일 동구사랑상품권 판매 종료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온 ‘동구사랑상품권’을 오는 4월 30일 판매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구와 중구내륙이 오는 7월 1일 제물포구로 출범하기 때문으로 이미 판매된 동구사랑상품권은 판매 중단을 동시에 강화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과학교육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그동안 동구사랑

상품권을 아껴주시고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해준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드린다”며 “비록 발행은 중단되지만 구민들이 보유한 잔액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향후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물포구 지역화폐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심하린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립과천과학관과 ‘우주천문 분야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과 우주천문 분야 진로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우주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나섰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주천문 특화 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한

학생 탐구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연계 학생 진로 탐색 및 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우주천문 분야 교육 콘텐츠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우주과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교사들은 최신 과학기술이 반영된 연수를 통해 수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우주를 직접 관측하고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인프라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우주천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우주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우주를 무대로 사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지평을 확장하겠다”며 “국립과천과학관과 협력해 탐구 중심의 학습 경험과 교사의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과학교육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고양의 더 나은 미래

###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